

보도시점

2026. 10.13.(화) 17:00

배포 2026. 10. 13.(화) 06:00

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2026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한 중앙-지방정부 간 통합 가축방역훈련 실시
- 가금 밀집지역 발생, 방역자원 조정·위기소통 등 복합상황 대응역량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3일(화) 농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농협경제지주, 국민체험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대비하여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안전한국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 책임 기관과 일반국민이 참여한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 종합점검 훈련

이번 훈련은 농식품부 재난상황실과 전북 완주군 현장훈련을 연계하여, 의사환축 신고와 초동대응,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가금 밀집지역 인근 추가 발생, 수습·복구까지 실제 재난상황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훈련은 전북 완주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신고된 상황에서 시작하며, 농식품부는 방역정책국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확산 가능성과 역학조사 범위, 주변 농가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고, 확진 이후에는 차관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여 발생농장 통제, 역학조사, 예찰·검사, 작업자 인체감염 예방 등 주요 방역조치를 점검하였다.

또한 완주군 현장 초동방역 장면을 농식품부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발생농장 이동제한 및 출입통제, 드론 방역소독, 모의 살처분과 사체처리 등을 시연하면서 중앙과 현장 간 지휘·지원체계를 확인하였다.

이어 최초 발생농장의 방역지역 내에 위치한 3개 농장이 추가로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이 과정에서 위험도 평가를 근거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판단하고 이에 필요한 살처분·예찰·검사 인력과 장비를 중앙과 지방이 조정·지원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언비어 등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상황을 부여하여,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농가·언론·온라인에 정확한 정보를 일관되게 전달하는 위기소통 역량도 함께 점검하였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고병원성 AI는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상황과 유사한 훈련을 통해 중앙과 지방,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훈련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은 관련 매뉴얼과 방역대책에 반영하여 실제 고병원성 AI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책임자	과 장	황성철 (044-201-2551)
		담당자	사무관	이주원 (044-201-2555)

